삼나소식

128호
10월 11일, 2026년

SAMNA NEWSLETTER
나성교회에서 세상 (삼라, 森羅)에 전하는 복음의 소식

본문: 창세기 1장 27절 ~ 28절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이번주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새 피조물

> 여러분 아직도 옛 아담 안에 있는 자신을 보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
> – 본문 주일설교 (9/27) 중 –

세상의 모든 물건은 만들면 그 물건을 두는 마땅한 위치와 '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4:21)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하신 것처럼, 등불은 곡식을 되는 '말'이나 편안히 누워 자는 '침대(평상)'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제 위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격, 즉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 자신을 모시기 위해 즉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릇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질그릇에 보화가 담겼다"고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자 사람이 있어야 할 마땅한 위치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 아내를 만드신 창조의 기사는, 훗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아내인 '교회'가 탄생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요 우주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상과 모양이 없으시지만, 온 세상 속에서 그 뜻을 이루고 당신을 나타내실 대리자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안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갈 만하므로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하신 존재인 인간들은 오늘날 거울을 보며 무엇이 좋은지 모른 채 불만이 가득하고 심지어 자살 직전의 비참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굉장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이 지으신 목적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그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에덴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서운 반역 행위이자 이탈 행위이며,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는 그 열매에 불과하며, 양심이 있으면 뉘우치는 그런 도덕적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죽여 없애야 하는 이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회개입니다.

사탄의 체현이 되어 버린 인간은 그 존귀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스스로의 인격을 세상의 지식, 물질, 명예 따위로 만들어보겠다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내가' 생겨났고,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끔찍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하체를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듯, 오늘날 사람들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내놓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소유라는 무화과 잎사귀 뒤에 숨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을 피해 옷을 벗고 혼자 숨을 쉴 수 있는 골방을 찾으며,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갑니다. 아담이 엮은 무화과 잎사귀가 말라비틀어지듯 인간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친히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탄과 죄,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부활승천하셨으며,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옛 아담의 감정과 썩어질 육신의 생각에 매여 살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새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나의 도덕적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공짜 은혜'입니다. 내 안의 연약함과 죄책감은 타락한 육신과 사단이 주는 거짓 속삭임일 뿐이며, 하나님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우리를 향해 "너는 의인이다, 내 자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매일의 신앙생활은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염려는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타락한 자아와 귀신이 주는 거짓 장난이므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어떠하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짜로 붙들어야 합니다. 내 안의 자아를 버리고 죽을 때, 내 안에서 주님의 지식과 지혜, 기쁨과 능력이 생수처럼 흘러나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막 4:21)

전체 설교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뒷면에서 영어번역본과 교회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nglish Translation

Made to Hold God's Presence

Passage: Genesis 23:1-6 (ESV)
Pastor: Dong Suk Chung
This QR code is for the full sermon

Core Theme: God made us for a purpose: to hold His presence like clay jars holding a priceless treasure. When humanity chose self-reliance, shame and emptiness followed, and no amount of money, success, or effort can fill that void. Through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God forgives our sin and comes to live within us by His Spirit. As we put our "old self" to death each day and trust what God says about us, His life flows out through us to the people around us.

Every object in the world has a proper place where it belongs. In Mark 4:21, Jesus points out that no one lights a lamp just to hide it under a basket or a bed. Instead, you put it on a stand so its light can fill the room. In the same way, God made everything with a specific place and purpose in mind.

Our true purpose and dignity come from being made in the image of God. Even though God formed us from the dust, He designed us like jars of clay meant to hold a priceless treasure: God Himself. The Lord created us so He could live inside us and we could become one with Him.

When God created the first humans, He declared that His creation was "very good". Yet today, many people look in the mirror and feel unhappy, dissatisfied or empty inside. This misery happens because humanity has walked away from the original purpose for which God made us.

In the Garden of Eden, God gave humans free will. He warned them not to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But tempted by the illusion that "we could be like God", humans chose self-reliance over submission to the Creator. In doing so, we traded our original goodness and dignity for a troubled life governed by self-centeredness and spiritual separation from God.

This choice—putting our own will above God's—is the root of sin. When humans tried to act as their own gods, feelings of shame and fear took over. Just like Adam and Eve tried to hide their nakedness using fig leaves, people today feel like they cannot expose their true selves and try to hide behind the fig leaves of money, success, or social status. As the wisdom of Ecclesiastes reminds us, pursuing peace through worldliness ultimately yields nothing. Human effort alone can never fix our inner emptiness or create a deep sense of self-worth; that inner void can only be filled by a restored relationship with our Creator.

But God did not abandon us in our fear. In Eden, He provided clothes made of animal skins to cover human shame. This was a hint of what Jesus Christ would do for us on the cross.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Jesus covers us, removes our sin, and lives within us as the Holy Spirit.

Through faith in Christ, believers are transformed into a new creation. Our salvation and identity no longer depend on our shifting emotions, on being good enough, or on our knowledge, but on the unshakeable, finished work of Christ. As temples of the Holy Spirit, we are called each day to step away from self-condemnation and stand securely in the grace freely offered to us.

Daily Christian life is not about collecting as much biblical knowledge as we can, but about crucifying and putting to death our corrupt "old self" every day. When negative thoughts, worries, or doubts pop up, we can learn to recognize them as lies coming from Satan and our "old self" trying to be its own god. This helps us to confidently reject these thought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trust what God says about us instead. God looks solely at His Son Jesus Christ, who shed His blood for us on the cross of Calvary, and declares to us, "You are righteous; you are My child."

Regardless of our feelings or emotions, we must hold fast only to the eternal Word of God as the truth. When our "old self" dies and the Holy Spirit comes to live within us, the Lord's knowledge, wisdom, joy, and power flow out from within us like living water and shining light and we can enjoy true peace and rest. As we rest in God's promises, our lives become channels of His blessing that reflect His grace, peace, and truth to our families, neighbors, and communities. May we daily lay aside our anxieties, trust in the complete redemption found in Jesus, and joyfully fulfill the purpose for which we were wonderfully made.

나성교회
Nasung Church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청소년부		
유치부	오전 11시 10분	유치부실
유년부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교회 연락처

562 - 690 - 7979
www.nasungchurch.org
redeemerheights.com (EM)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information@nasungchurch.org
samnanewsletter@gmail.com
(삼나소식 이메일)